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	과 장 김일규 주무관 신서호	042-481-5258 042-481-8501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20년 2월 18일(화)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
특허청, 대학 등의 특허 상용화를 위한 펀드 지원 밝혀

- 국민대, 서울대, 아주대, 재료연구소와 특허 갭펀드 지원 업무협약 체결 -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2월 19일(수)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(서울 역삼동)에서 특허 갭펀드 운영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국민대, 서울대, 아주대, 재료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.
- 특허 갭펀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와, 기업이 원하는 기술간의 수준 차이(gap)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검증, 시제품 제작, 기술마케팅 등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.
 - 이는 마치 펀드처럼 기술 이전을 통해 기술료를 회수하고, 이를 다른 유망 특허기술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운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회성 지원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.
- 올해 특허 갭펀드 지원 사업에는 총 12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하여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,
 - 심사결과 서울대, 재료연구소 뿐만 아니라 아주대, 국민대 등이 공동 설립한 (주)엔포유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(이하 (주)엔포유)를 포함한 3개 기관이 선정됐다.
 - 특허청은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이 특허 갭펀드를 조성하도록 앞으로 3년간 매년 2~4억원의 기술상용화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.

- 특허청은 지난해 특허 갱판드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6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총 18억원의 특허 갱판드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. 운영결과 특허이전 59건 및 로열티 78.7억원의 성과를 창출했고 지원 첫해에 지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7%의 기술료를 회수했다.
 - 특히 경북대의 경우 ‘엑소좀 분비 억제 항암제’기술을 14억원에 이전하는 등 대형 기술이전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,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원금 대비 기술이전 수입 14배 창출 및 지원금의 162%를 회수하는 등 대학 특허도 민간 투자자들이 충분히 주목할 만한 투자 대상임을 입증하였다.
- 이번에 선정된 (주)엔포유는 아주대, 국민대 등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서, 각 대학의 우수한 특허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특허청은 앞으로도 (주)엔포유와 같이 여러 대학의 우수 특허를 모아 전문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- 박원주 특허청장은 “이제 우리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 특허로부터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”면서 “특허청은 특허 갱판드 사업을 통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가 해외 출원으로 이어져 가치 있는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: 한국형 특허 갱판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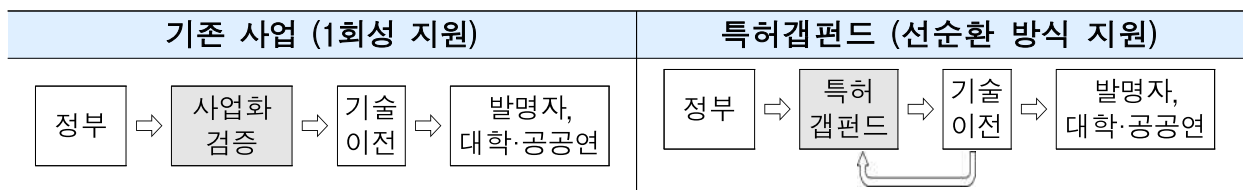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주무관 신서호(☎ 042-481-850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특허갭펀드 개요

- (목적)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대학·공공연구가 스스로 특허사업화를 수행하는 선순환 특허생태계 구축
- (운영방식) 정부는 특허갭펀드 초기자금을 지원하고, 대학·공공연구는 우수 특허기술을 선별하여 사업화를 지원한 후 성과 일부를 회수하여 재투자

< 대학·공공연구 특허기술 사업화 검증 지원사업 개선방향 >



- (사업규모) 연 27억원* (선정평가 상위부터 IP경영 규모에 따라 기관당 1~4억원** 지원)
 - * '19년 18억원, '20년 9억원 규모의 특허갭펀드 신규 조성
 - ** IP경영 규모(특허비용 지출 + 기술이전 수입) 40억원 이상인 경우 4억원 지원
- (사업기간) 9년 (3년 1차지원 + 3년 성과숙성 + 3년 2차지원*)
 - * 1차지원금 대비 80%(잠정안) 이상을 회수·재투자한 기관에 2차 지원 예정

□ 특허 갭펀드 운영구조

